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6월모평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6.25.)

## 6/29(화), 6월 모평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를 위한 법률적 대 안을 발표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9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두 기관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평') 수학 영역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수능출제의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학교교육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으로 모자라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 '마그마 수능'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사교육계의 유명 인강 강사들도 '고교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급기야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 문항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두차례의 수능이 치러졌지만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 준수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일에 치러진 6월 모평도 어려웠다는 사교육기관의 총평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상 종전보다 물리적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3 수험생들은 2차 재난을 마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두 기관은 6월 모평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가 비정상적인 수능 출제의 전조라면 실제 수능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

하여 출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능 출제에서 고교 교육과정이 준수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가운데 수능 출제가 교육과정을 준수해 정의로운 공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명: 6월모평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국회 정문 앞

□ 주 최: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2022학년도 6월 모평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 수능 출제 정상화를 위한 법률적 대안 발표
- 수능 출제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관련 향후 계획
- 현직 고교교사 발언

2021. 6. 25.

국회의원 강민정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민정 국회의원실 이태경 비서(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